

이슈브리프 643호
(2024. 1. 7)

시진핑 주석의 2025년 신년사 분석과 함의

제643호

양갑용 지역전략연구실



국문초록

시진핑 주석은 2024년 12월 31일 저녁 7시(베이징 시간) 취임 후 열두 번째 새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중국이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국내외 정세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짧은 신년사 안에 담겨있다.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 분석을 통해서 2025년 중국이 보내는 신호를 포착해내고자 한다. 첫째, 이번 신년사에서는 정세 인식 관련하여 '정도(程度)'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인 '지극히(极)'와 '매우(很)'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라는 상황을 전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용어 선택 등 메시지 관리의 고민이 엿보인다. 둘째, 현실이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에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이전 신년사와 다른 지점이다. 표현 방식이 직접적이지 않다는 것은 중국이 기대했던 경제회복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셋째, '중국식 현대화'라는 표현은 이번 신년사에서 단지 두 차례만 언급되었지만, 신년사 내용의 전부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중국식 현대화'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알려주고 있다. 넷째, 신년사에서 '글로벌 사우스(全球南方)'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년 중국이 참가하는 다자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견인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다섯째, 이번 신년사에서는 '일국양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되었다. 여섯째, 양안(대만) 관련 언급도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세를 막을 수 없다는 한층 더 강화된 표현으로 다시 등장했다. 시진핑 주석의 2025년 신년사는 은유적인 표현과 중의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했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으며, 직접적인 표현은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현실의 어려움을 미래의 기대와 희망으로 치환하는 표현들이 자주 목격되었다. 중국은 신년사에 나타난 것처럼 '중국식 현대화' 깃발을 들고 2025년에도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을 통해서 어려운 국면을 뚫으려는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

주제어 : 중국, 시진핑, 신년사, 2025, 중국식 현대화

시진핑 주석은 2013년 3월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 그해 12월 31일 2014년 맞이 신년사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12월 31일 저녁 7시(베이징 시각) 신년사를 발표해오고 있다. 2024년 12월 31일에도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열두 번째 새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중국이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국내외 정세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짧은 신년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한 인식에 따라 중국의 정책 방향이나 내용이 설게 및 조정되고, 이는 중국의 변화를 주목하는 세계 관찰자들에게 여러 가지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세 변화 인식의 ‘표현’을 고민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는 해당연도 평가와 다음 연도 기대와 전망이 들어있고, 이는 중국의 정책 방향과 지향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가 2024년 국내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고, 충실한 성과를 냈다”라는 시진핑 주석 신년사에서의 평가도 향후 2024년도 중국 경제를 평가하는 주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포인트이다. 신년사를 통해서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한 인식의 실마리를 제공한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진핑 주석은 2024년 정세 인식을 “평범하지 않은” 한 해로 표현했다.

[표 1] 시진핑 주석 역대 신년사에 나타난 정세 인식

연차	정세 인식 표현
2025년 신년사	2024년을 “평범하지 않은(不平凡)” 한 해였고, “세계는 혼란스럽고 뒤엉켜 있다”라고 표현
2024년 신년사	2023년을 “쉽지 않은” 한 해로 표현
2023년 신년사	2022년을 “백 년의 변화 국면은 빠르게 발전하고 세계는 결코 태평하지 않다”라고 평가

2022년 신년사	2021년 정세 인식 언급 없이 국내 문제에 집중
2021년 신년사	2020년을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极不平凡)” 한 해로 표현
2020년 신년사	2019년을 “과도, 비바람, 험난함과 장애”로 묘사
2019년 신년사	2018년을 “각종 위험과 도전의 시기”로 표현
2018년 신년사	2017년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일상”으로 표현
2017년 신년사	2016년을 “평범하지 않고 잊을 수 없는 일 년”으로 묘사
2016년 신년사	2015년을 “많이 노력했고, 수확 또한 많았다”라고 평가
2015년 신년사	2014년을 “잊을 수 없는” 한 해로 평가
2014년 신년사	2013년을 “매우 평범하지 않은(很不平凡)” 한 해로 평가

* 출처 : 역대 신년사를 필자가 정리

2025년도 신년사에 나타난 이러한 정세 인식 관련한 표현은 2024년 신년사의 “쉽지 않은” 한 해라는 표현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020년의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极不平凡)”, 2013년의 “매우 평범하지 않은(很不平凡)” 표현과는 약간 다른 의미로 읽힌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정도(程度)’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인 ‘지극히(极)’와 ‘매우(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표현 과정에서 메시지 관리의 고민이 엿보인다. ‘정도’의 의미가 있는 접두어를 사용하여 국내외 정세가 ‘극단적으로’ 어렵다는 표현을 하면 자칫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을 경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적어도 ‘경제회복’을 전면에 내건 2024년 중국은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나름의 자부심을 품고, 그 여세를 몰아 2025년을 맞이하자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실제 살기가 좋아진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다.

현저한 성과를 드러내기 어려운 경제 상황

신년사는 “꿈은 비록 멀어도 쫓으면 도달할 수 있고, 소원은 비록 힘들어도 가지면 이를 수 있다(夢雖遙, 追則能達; 願雖艱, 持則可圓)”는 말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강조했다.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간직하면서 2025년 자신 있게 나아가자고 역설하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미래의 꿈과 기대로 상쇄하려는 표현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현실이 정말 어렵다는 표현을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에둘러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은 힘들지만, 미래를 보고 견뎌내자는 자력갱생(自力更生)의 기대가 담겨있다.

현실이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에 이를 은유적인 표현을 빌어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 점이 이전 신년사와 다른 지점이다. 2024년 신년사에서는 “업무와 생활의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工作生活壓力都很大)”라거나 2018년 신년사에서는 “걱정거리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다(有不少操心事、煩心事)”라는 표현으로 국민이 직면한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러나 2025년 신년사에서는 우회적인 표현이나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만큼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이다(讓人民過上幸福生活是頭等大事)”라는 표현 역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실제 매우 어려웠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읽힌다.

2025년 신년사에서 민생(民生)을 강조한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 표현 방식이 직접적이지 않았다. 성과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처한 국내외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경제회복을 통한 발전의 과실이 국민의 생활에 직접 그리고 충분히 스며들지 않았다는 것을 돌려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기대했던 경제회복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을 직접 언급하기 보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우회적인 접근을 통해서 일종의 ‘희망’ 바라기를 하고 있음이 신년사에 담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4년 중국이 기대했던 경제회복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국민의 마음을 다독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민생 관련 성과를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비바람과 무지개를 경험했다(經歷風雨彩虹)”라는 표현 역시 경제 성과가 기대에 부합할 정도로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력한 ‘중국식 현대화’ 메시지 발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중국식 현대화’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다. ‘중국식 현대화’라는 표현은 이번 신년사에서 단지 두 차례만 언급되었다. 하지만 ‘중국식 현대화’라는 표현은 2025년 신년사 내용의 전부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심지어 <구시(求是)> 2025년 제1기 시진핑 주석의 문장(文章) 역시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자(以中國式現代化全面推進強國建設、民族復興偉業)”였다. 적어도 2025년 중국의 정책 방향이나 목표 심지어 내용까지도 모두 ‘중국식 현대화’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신년사에서 나타난 시진핑 주석의 ‘중국식 현대화’의 주요 내용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진보의 성과를 현시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25년 신년사는 ‘중국식 현대화’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될 것임을 분명하게 언급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2024년 7월 20기 3중전회를 개최했다. 당시 회의의 핵심 키워드도 ‘중국식 현대화’였다. 2024년 시진핑 주석의 지방 현지 시찰의 주요 메시지 역시 ‘중국식 현대화’에 집중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2024년 한 해 동안 텐진(2024.2.1.~2.), 후난

(2024.3.18.~21.), 충칭(2024.4.22.~24.), 산둥(2024.5.22.~24.), 칭하이(2024.6.18.~19.), 닝샤(2024.6.19.~20.), 간쑤(2024.9.10.~13.), 푸젠(2024.10.15.~16.), 후베이(2024.11.4.~6.), 하이난(2024.12.16.~17.), 마카오(2024.12.18.~20.) 등 여러 지방을 시찰했다. 시찰 과정에서 방문한 곳이나 만나는 사람에게 경제회복과 발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그리고 이것을 ‘중국식 현대화’로 총화하고, 이번 신년사에 그대로 반영했다. 국내외 불확실성을 ‘중국식 현대화’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변화의 내적 지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당분간 대외관계에서는 현상 유지에 집중하고, 모든 에너지를 국내 경제회복과 과학기술 육성 등 ‘중국식 현대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에서 중요하게 언급한 것처럼 ‘중국식 현대화’를 구체적인 실천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은 2025년에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방편으로서 ‘상하동심(上下同心)’도 계속 강조될 것이다. 이는 위아래 모두 같은 마음으로 ‘중국식 현대화’에 나서자는 일종의 ‘동원(動員)’의 정치를 주문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신년사에 따르면 ‘중국식 현대화’의 일차적인 목표는 우선 2025년에 14.5 규획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진핑 주석은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투자를 언급했고, 과학기술의 자립(自立)과 자강(自強)도 재차 부언했다. 그리고 이를 ‘고품질 발전(高質量發展)’으로 승화시켜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발전’이 향후 중국이 나아갈 정책 방향임을 분명히 제시한 것도 주목할 포인트이다. 그 중심에 바로 ‘중국식 현대화’라는 테제가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 견인과 ‘일국양제’ 그리고 대만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2013년 말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신년사에서

‘글로벌 사우스(全球南方)’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신년사에 따르면 “세계는 어지럽게 뒤엉켜 있다”라고 인식하고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강대국(負責任大國)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글로벌 거버넌스 변혁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단결과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 추진,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 SCO, BRICS, APEC, G20 등에서 ‘중국의 주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데 중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유엔 중심의 국제체제를 수호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글로벌 거버넌스 변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강조했다. 이번 신년사에서 유엔 중심의 국제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다자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단결과 협력을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천명했다. 2025년 중국이 참가하는 다자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견인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국은 2025년에도 미국, EU 등 강대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및 단결 강화를 위한 외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진핑 주석은 2020년, 2022년, 2023년, 2025년 등 네 차례 신년사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강조하거나 언급했었다. 그러나 매번 ‘일국양제’를 언급하는 표현이나 기대가 약간씩 변해왔다. 예를 들어, 2020년 신년사는 마카오의 경험을 ‘일국양제’로 연결하여 실현 가능성을 언급했다. 2022년 신년사에서는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 ‘일국양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2023년 신년사와 2025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일국양제’는 구현되어야 하는 정책 목표로서 명확성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2023년 신년사에서는 구현해야 하는 목표로서 ‘일국양제’를 언급했지만 이번 신년사에서는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되었다. 물론 구현이든 관철이든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 번영과 안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2024년 신년사에서 ‘일국양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다시 제기하면서 ‘관철’이라는 한층 더 강화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이는 아마도 마카오의 중국 귀속 25년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홍콩에 전파하기 위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양안(대만) 관련 언급도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세를 막을 수 없다는 한층 더 강화된 표현으로 2025년 신년사에 다시 등장했다. 그동안 신년사에서 양안(대만) 관련 언급은 2016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신년사에 등장했다. 2016년 처음 등장했던 양안 관련 언급은 당시 마잉주(馬英九) 총통과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의 이후 “해협 양안은 한 가족”이라는 표현으로 처음 등장했다. 당시에는 양안의 평화적 발전이라는 양안 동포들의 공통 염원을 언급하는 차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신년사부터는 양안과 조국 통일을 연결하는 통일의 관점에서 양안(대만)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작년 신년사에서 역사의 필연으로 조국 통일을 언급한 이후 올해에는 “혈육의 정을 끊을 수 없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세를 막을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진화했다. 사실상 대만 민진당 세력과 미국 등 외부 세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화를 염원하던 양안 관계에서 이제는 조국 통일의 당위성으로 양안 관계를 사고하기 시작하면서 2025년에도 양안 관계를 둘러싼 긴장의 파고가 계속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현실의 어려움을 미래 희망으로 담금질

시진핑 주석의 2025년 신년사를 보면 은유적인 표현과 중의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꿈’, ‘소원’ 등 추상적인 표현으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직접적인 표현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국은 2024년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경제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2024년 하반기 들어서 경기 부양 관련 정책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신년사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미래의 기대와 희망으로 치환하는 표현들이 자주 목격되고, 청중들에게 분명한 데이터를 통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답답한 현실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

중국이 직면한 어려움이 비단 중국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전쟁이 계속되며 공급망까지도 가치와 이념의 잣대가 드리워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노력도 일정한 한계를 가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은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무역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 점에서 우리와 이해관계가 연결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올해 신년사에 나타난 것처럼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고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을 통해서 이 국면을 뚫으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당위성과 다짐 그리고 자원과 인력의 ‘동원’으로만 이 국면을 중국 홀로 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양자 차원, 역내 차원,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유연한 모습을 기대하는 외부의 시선도

의식해야 한다. 중국이 2025년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보여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